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도시재개발에 고향을 잃은 원주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어야 할 옷, 먹어야 할 음식,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 집이 필요 한데 이것을 의식주(衣食住)라 한다. 이것은 삶의 기본이면서 행복조건 수단이기도 하다. 의식주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행복의 첫 단계는 통과한 것이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빛이 없이 사는 것이 복지 사회의 관문인데 언제부터인가 주거 문제가 아파트화 하면서 삶의 보금자리인 고향이 없어졌으며 사람이 부화장에서 깬 병아리처럼 삭막하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의 고향의 봄 동요는 도시 아파트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생소한 이야기로 들린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행복 조건인데 아파트 문화가 도시를 잠식하면서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정들었던 동네가 철거되고 원주민은 쫓겨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원주민의 배려가 부족하여 원주민은 본래 집터에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 없으며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은행 빚쟁이 신세가 되고 만다.

빛 없이 살려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 이웃끼리 정답게 살던 마을이 없어지고 쫓겨나 흩어진 원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공장을 지어 재개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 이익을 보는 재개발사업이다. 아파트값 책정에서 정주영 씨가 대선 공약에서 말했듯이 원주민이 고향에 들어와 살도록 배려해서 반값으로 공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원주민은 고향을 잃고 빚쟁이가 되면서 행복 조건에서 집 때문에 불행한 삶으로 젖어 들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 재개발 아파트 공사는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정답을 알고 추진해야 한다. 어느 날,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던 건물이 갑자기 없어진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한다. 친근한 공간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것은 삶에 불안감을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은 그 자체로 내 삶의 일부이며 향수가 짙은 곳이며 정든 주거 환경은 곧 행복의 기본요건이 된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은 주거 문제를 야기했다.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이 나라의 제

큰 과제였던 때가 있었다. 1988년 부터 정부는 200만 호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일산, 분당, 평촌 같은 '베드타운형' 신도시가 생겼다. 주택난과 함께 주거의 질 문제도 제기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은 시대 상황과도 부합한다. 사실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건물이가장 낡고 주거환경이 제일 열악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돈이 되는 곳, 이른바 사업성이 큰 순서로 추진되었다. 대규모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정작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떠나야 했다. 소중한 추억은 지워졌고 동네는 해체되고 주민들은 갈등하고 분열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이었던가?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켰더니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과 상권을 개척한 이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러한 부작용을 상징한다. 도시의 속칭 달동네 마을은 산비탈에 계곡지갈이 붙은 달동네로서 주거의 질이 낮지만 떠날 수도 없는 저소득층 주민이 대부분이 살고 있다. 이들은 낡은 주택을 개축하고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넓고 밝게 만들었

다. 작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을 꾸며 주민들이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충족감을 주었다.

이들은 좀 불편하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불평 없이 살고 있다. 이들에게 도시 재개발은 악재다.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 재생 정책이 중요해야 할 것은 규모나 속도가 아니다. 예전의 대규모 재개발정책은 드넓은 땅을 확보해 큰 건물을 짓고 큰길을 내는 일이라 대자본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을 길을 고치고 살던 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은 동네 기업과 개인 기술자도 할 수 있다.

도시재생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되고 낡았다고 해서 부수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는 것이다. 도시의 오래전에 태어나 앞으로 함께 살아갈 하나의 생명체라는 인문주의 정신이 밑바탕이다. 주민과 행정, 전문가를 도시재생사업의 세 주체로 들 수 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다. 행정의 속도 주의, 성과주의가 작동할수록 시민의 뜻과 엇가기 쉽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욕망과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작별할 일이 많으므로 주민과 직접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이 분수에 맞는 행복한 삶을 유도해야 하며, 재개발 아파트건축 사업으로 행복 조건인 의식주에서 주택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빚쟁이로 전락하는 원주민을 생각해야 한다.

社說

전교생 등교수업 성공 조건

전국 초등학교 5~6학년생과 중학교 1학년생들이 8일 등교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학교에 다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꼭 99일만이다. 이날 학생들은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몇몇 학부모들은 마음 졸이며 교문에서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봤다. 오랫동안 온라인 수업만 하다가 학교에 나와 친구들과 만나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반가운 표정이 역력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등교를 기념해 갖가지 이벤트를 실시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송이씩을 나눠줬고, 또 중학교에서는 학생회 소속 2~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기도 했다. 방학 중에도 둔 사회적 거리두기 차이를 지켜냈다. 등교를 맞이하는 교직원들은 모두 1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고, 학생들도 한 줄로 들어섰다. 교사

들은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하며 일일이 손 소독제를 뿌려줬다.

전교생 등교가 시작됐지만 실제로 모든 학생이 학교에 간 것은 아니다.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과대(초 20학급 이상, 중·고 13학급 이상) 학교는 같은 날 등교생이 전교생의 2/3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과대학교는 학급·학년별로 격일·격주제 등 원격수업과 등교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복장도 편안한 옷을 입도록 했다. 교복을 입고 체육시간에 탈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제 관건은 학교를 통한 감염 사례가 없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최근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육당국과 지역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한다. 또한 휴식 모를 긴급상황에 대비해 검체 채취 키트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수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자재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내 선택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화재 주의해야...

꽃내음이 가득한 봄이 지나가고 푸른하늘로 가득한 초록의 계절이 다가왔다. 하지만, 대낮엔 파사로운 햇살로 인해 벌써부터 초여름이 우리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폭염이 심할수록 가정이나 직장에서 냉방기기를 가동하기 시작하고 이에따라 에어컨 화재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에어컨 화재는 총 692건으로 그 중 71%(493건)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했다.

또한, 화재원인은 과열, 과부하에 따른 전선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3%(50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에어컨 전선을 수시로 확인해서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전문가를 통해 전선을 교체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8시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의 열을 식혀야 하며, 실외기에 쌓인 먼지들을 자주 치워주고 실외기 근처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과 같이 불에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쌓인 쓰레기와 무심코 버린 담배꽂이 추가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 여름 무더위는 예년보다 길어진다고 한다. 무더위에는 냉방기기 취급도 많고 안전의식도 소홀해지기 쉽다. 이럴 때 일수록 에어컨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철저히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자.

여수소방서장 김찬수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